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한 일고찰*

- 동경대 소장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을 중심으로 -

박기영**

〈차 례〉

1. 머리말
2. 동경대 소장 자료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
3.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의 체제
4. 『고찰(考察)』과 『시고(試考)』의 내용 검토
   1) 머리말
   2) ‘ㆍ’音에 대한 논의
   3) 이중모음(二重母音)에 대한 논의
   4) ㅿ에 대한 논의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동경대 소장 자료인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조사보고서임을 확인하고, 그 체제와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서지적인 고찰과 내용 확인을 통해 이 자료가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고, 자료의 전반적인 체제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그 체제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머리말의 검토를 통해 고노 로쿠로의 방언 조사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였으며 'ㆍ' 음에 대한 연구 내용 검토를 통해 고노 로쿠로와 심악 이숭녕의 학문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중모음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중모음과 복합모음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고, △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 음가에 대한 견해가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과 『朝鮮方言學試考』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확인하였다.

주제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방언 연구, 『朝鮮方言學試考』,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동경대 문학부 언어학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가 3년간 한국어 방언 조사를 한 후 쓴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조사보고서임을 확인하고 이의 내용과 『조선방언학시고(朝鮮方言學試考』

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이 두 일본인 학자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오구라 신페이의 방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또 그 시대적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1] 그 생애와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는 동경대 문학부 언어학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소창진평 장서(小倉進平 藏書) 속의 자료를 바탕으로 입체적,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2] 한편 고노 로쿠로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해서는 그 생애와 학문, 방언에 대한 인식, 방언조사 방법론 등과 함께, 『조선방언학시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3]

고노 로쿠로의 한국어 방언 관련 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은 일본학술 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의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방언 조사를 실시한 뒤 제출한 조사보고서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선방언학시고』와 동일하다고만 알려져 왔을 뿐,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국내에서나 일본에서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고노 로쿠로의 한국어 방언 연구가 그의 스승인 오구라 신페이의 방언 연구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를 위해 동경대 문학부 언어학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

---

1) 李秉根, 「1910~20년대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과제와 방향- 小倉進平의 方言研究를 중심으로-」, 한국방언학회, 『방언학』2, 2005, pp. 23-61.

2) 정승철, 「小倉進平의 생애와 학문」,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11, 2010, pp. 155-184.

3) 이진호, 「河野六郎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하여」,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14, 2011, pp. 227-252.

考察)』이라는 자료가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조사보고서임을 확인하고, 이 자료의 체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ㆍ'에 대한 논의와 두 번째 주제인 '이중모음'에 대한 논의, 네 번째 주제인 'ㅿ'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 논의들과 『조선방언학시고』 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4)]

2. 동경대 소장 자료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에 이어 한국어 방언을 연구한 일본인 학자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12~1998)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1945년에 출간된 『조선방언학시고(朝鮮方言學試考)』이다.[5)] 이 『시고(試考)』의 바탕이 된 것은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 학술 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1937년부터 1940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ノ採集及ビ整理)'라는 연구 사업이다. 이 연구 사업의 조사 결과 보고는 1941년 1월에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보고서의 내용은 1945년에 간행된 『시고』와 동일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검토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는 듯하다. 이 보고서로 추정되는 자료가 동경대학교 문학부

4) 모음 간의 '-g-'에 대해서는 두 자료 사이에 특별히 언급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그 논의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이진호, 앞의 논문, pp. 245-246).

5) 이하 서술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시고』로 칭하기로 한다.

언어학연구실에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동경대 도서관 검색 시스템의 서지사항을 보면 책에 대한 출판자는 '[京城]: [出版者不明]'으로 되어 있으며 출판연도는 '[19--?]'로 표시되어 있다.[6] 이 자료를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조사보고서로 추정하는 근거는 우선 서문 마지막에 '1941년(昭和 16년) 1월 23일 경성에서'라는 기록이 있어, 조사보고서와 그 발간 연월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서문에 이것이 '보고서'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7]

> "以上の方法を以て三四百の單語を用意し上述各地に臨んだ譯である。其の採集結果を充分に整理するには幾多の年月を要するが故に、其の最も顯著な現像に就き暫定的立論を試みたのが卽ち此の報告である。"(밑줄 필자)
>
>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3~400 단어를 준비하여 위에 서술한 각지의 조사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 채집결과를 충분히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 중 가장 현저한 현상에 대해 잠정적인 입론을 시도한 것이 바로 이 보고이다.)(밑줄 필자)

그러나 서론에서 보이는 연도와 서술보다도 『조선어 방언의

---

6) 이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서울대 국문과 정승철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면을 통해 선생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직접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 동경대학교 문학부 언어학연구실의 기무라 타쿠(木村 拓) 선생님, 그리고 이 자료를 일일이 사진 촬영하여 보내 준 와세다 대학교의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동경대학교 언어학연구실에도 감사를 드린다.

7) 이 자료의 사진을 논문에 싣기 위해서는 동경대학교 언어학연구실의 동의가 필요한데, 논문 게재 일정 상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 점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과[8] 『조선방언학시고』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전자를 바탕으로 하여 후자가 좀 더 추가, 보완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일례로 두 자료의 첫 번째 주제인 '・音に就いて'의 첫 단락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두 책이 거의 동일하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괄호로 표시하기로 한다.

> ・音は今日京城及び多くの地方に於て殆んど全くㅏ音と混同している。卽ち[a]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が、諺文創製當時にあっては他の母音と可也の相異があったに相違ない。此の・音が如何なる音であったかという事に就いて最も有力な資料(材料)を提供するのは方言である。今此の・を以て表された次の數語に就いて方言の狀況を檢索してみよう。
>
> (・음은 현재 경성 및 많은 지방에서 거의 모두 ㅏ음과 혼동되고 있다. 즉 [a]로 되어 있으나 언문 창제 당시에는 다른 모음과 꽤 차이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음이 어떤 음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 가장 유력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방언이다. 지금 이 ・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단어에 대해 방언의 상황을 찾아보자.)
>
> 甲. ㄱ・ㅿㅐ(鋏), ㄱ・ㅿ・ㄹ(秋), ㄱ・ㅿ(境(傍)), ㄷ・ㄹㅣ(雞), ㄷ・ㄹ(月), ㅅ・내(男), ㅌ・ㄱ(顎), ㅎ・ㄹㅣ(土), ㅎ・ㄹㄷㄴ・ㄴ다(舐める)
>
> 乙. ㅂ・ㄹㅣ다(明い), ㅁ・ㄹㅣ다(淸い), ㅁ・ㅿ・ㄹ(村), ㅍ・ㅅ(小豆), ㅍ・리(蠅)

위의 자료를 보면 내용은 동일하면서 큰 의미 차이가 없는 단어 가 교체되어 쓰이고 있는데, 『고찰(考察)』의 '資料'와 'ㄱ・ㅿ'의 의미로 쓴 한자 '境'이 '材料'와 '傍'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 또한 'ㅎ・ㄹㄷㄴ・ㄴ다'의 경우 『고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고』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는 '핥다'의 어간 '핥

8) 이하 서술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고찰』로 칭하기로 한다.
9) 위에서 괄호 안에 쓴 것이 『試考』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 '·'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 기술한 것을 『시고』에서 수정한 것이다.

이처럼 『시고』는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며 이렇게 볼 때 동경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고찰』은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조사보고서임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두 자료에는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된다. 그 차이 가운데에는 『시고』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언 조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방언 자료에 대한 기술에서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하야육랑의 방언 조사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시고』의 내용과 비교하며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3.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의 체제

『고찰』은 따로 목차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제목을 목차 형식으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はしがき
凡例
一 ・音に就いて
二 二重母音に就て
三 [g]の消失
四 △音に就いて
五 ㄱ・△ㅐ(銳)に就いて
方言語彙

『고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국어음운사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연구 부분과 실제 방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의 제시 부분이다.[10] 이러한 체제는 『시고』에서도 그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약간의 변화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고찰』과 『시고』의 전체적인 체제는 오구라 신페이의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에[11]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이 세 자료의 목차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Ch Ⅰ. General Remarks (생략) Ch Ⅱ. Main Substance 1. ɐ“・” 2. oi 3. jɔ 4. jo 5. ź“△” 6. [b] Occurring at the Middle of a Word 7. [k], [g] Occurring at the Middle of a Word 8. pjɔ and na-rak Rice-plant(稻), or Unhulled Rice(籾) 9. Indian Corn(玉蜀黍) 10. Snail(蝸牛) 11. Auxiliary Verbs in Humble Form 12. Foreign Words (a) Chinese (b) Jurchin, Manchurian (c) Mongolian (d) Russian (e) Japanese 13. Demarcation of the Korean Dialects Maps APPENDIX Vocabulary, REVIEWS OF BOOKS
『考察』	はしがき 凡例 一 ・音に就いて 二 二重母音に就て 三 [g]の消失

10) 양적으로 볼 때 전자가 92쪽에 걸쳐 있고 방언 어휘 제시 부분이 166쪽에 걸쳐 있다.

11) 이하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Outline』으로 칭하기로 한다.

	四 △音に就いて 五 ㄱ・△ㅐ(鋏)に就いて 方言語彙
『試考』	はしがき 標音記號に就いて 序言 「鋏」語考-序說 第一主題: ・音に就いて 第二主題: △音に就いて 付Ⅰ.「구유」考 付Ⅱ.「여호」考 第三主題: 語間の-g-の消失 第四主題: 複合母音に就いて 結論 Ⅰ. ㄱ・시개「鋏」の硏究 Ⅱ. 朝鮮語方言の分類と其の沿革 附錄 Ⅰ. k-の口蓋音化 Ⅱ. 拗音の前の h-〉s- Ⅲ. 朝鮮語の'男'及び'女'に就いて 方言語彙 分布圖

세 자료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우선 그 형식이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연구 부분과 방언 어휘 자료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Outline』의 2장 Main Substance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들이 『고찰』과 『시고』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utline』과 『고찰』의 첫 두 주제가 '·'와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시고』의 음운사 관련 논의는 'ㄱ·시개'를 큰 주제로 삼고 그 어휘에 포함된 '·, △, 어중의 g, 이중모음'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어 논의 순서는 다르지만 역시 그 주제는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utline』과 『시고』의 체제가 보여주는 공통점도 있는데, 우선 일부 어휘의 방언지도(分布圖)가 포함되어 있

다. 또한 다루고 있는 어휘는 다르지만, 2장의 8, 9, 10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어휘에 대한 논의가 『시고』에서도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 자료의 체제 비교에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자료의 방언 어휘 자료의 정리 방식이다. 『시고』의 방언 항목 배열 방식은 내용별로 구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논의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12] 그런데 이러한 방언 항목의 배열 방식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Outline』에서 보여 주는 배열 방식과 동일하며, 방언 항목의 자료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utline』의 방언 어휘 자료 중 제일 처음 제시되고 있는 'ㅁ·ㄹ'의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Horse(馬)
> The points at which it is pronounced [mal] are omitted.
> [mar-i] (L) 220, 221
> [mol] (A) 1, 2, 3, 4, 5
> [mol] (A) 14, 18, 22, 24(1), 26, 28, 29 (B) 31, 32 (C) 51, 52(2), 59(3), (K) 204, 205 (L) 217, 218
> [mor-i] (L) 220
> (1) Pronounced [mal] also in (A), (B), and all other areas.
> (2) At Tô-ei 統營 and Kyo-sai 巨濟, pronounced [mol] by women in town and generally in the rural districts
> (3) At Ka-tô 河東 and Nan-kai 南海, pronounced [mol] by illiterate people even in town.

『Outline』에서는 28개의 방언 어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어휘들의 배열순서는 역시 본문의 논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어휘의 각 방언형을 앞에 제시하고 그

12) 이진호, 앞의 논문, p. 247.

방언형이 쓰이는 지역을 표시해 주며, 각주 기호를 붙여 방언형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제시 방식은 『고찰』과 『시고』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세 자료의 전체적인 체제를 비교, 검토해 보면 고노 로쿠로의 『고찰』과 『시고』는 오구라 신페이의 『Outline』이 보여주는 형식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오구라 신페이의 『Outline』에 대해서는 『시고』의 서문에도 이미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중략) 저자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고 또는 연구를 학수고대하는 바 간절한데, 작년에 선생은 이러한 저자의 숙원에 부응하여 東洋文庫에서 다음의 귀중한 논문을 발표했다.
>
>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No. 12, Tokyo, The Toyo Bunko, 1940.
>
> 이 논문은 선생이 여러 해 동안 고심하여 채집한 한국 각 방언의 자료로부터 그 중요한 점을 추려서 한국어 방언의 윤곽을 명료하게 한 것이다. 이 논문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東洋文庫 Memoirs의 일부로 국내보다도 오히려 국외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기쁨을 함께할 수 없는 점이 유감이다.(밑줄 필자)[13]

『고찰』의 서문에는 『Outline』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찰』과 『시고』가 보여주는 체제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보고서를 쓸 때 『Outline』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한다.[14] 아마도

---

13) 이진호 譯註, 한국어 방언학 시론 - 'ㄱ·시개(鋏)' 고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p. 7.

14) 『考察』과 『試考』의 차이 중의 하나는 각주를 통한 참고문헌의 제시이다. 『試考』는 그 참고문헌이 각주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考察』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어 있는 밑줄 친 부분이 『Outline』을 하나의 모델로 삼게 된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억측은 삼가기로 한다.

체제에 대한 검토에 이어 실제 두 자료의 내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고찰(考察)』과 『시고(試考)』의 내용 검토

1) 머리말

기본적으로 『시고』는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보충, 심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두 자료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고찰』에만 있는 내용 가운데 기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두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고찰』의 머리말에는 고노 로쿠로에 의해 이루어진 방언 조사 지점과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시고』에는 방언 조사 지점만 도별로 제시되어 있을 뿐 조사 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 시기와 지점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昭和 13년 4월 경기도 인천, 강화, 의정부, 가평, 양평, 광주, 수원, 여주, 이천
> 同年 5월 경기도 장단, 개성, 황해도 연안, 해주, 강령, 옹진, 태탄, 장연, 몽금포, 송화, 은율, 안악, 신천, 재령
> 同年 6월 황해도 서흥, 황주, 수안, 곡산, 신계, 토산, 금천, 평안남

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두 자료 본문의 유사성으로 보아 『考察』에 참고문헌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역시 이것이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도 중화, 상원, 강원도 이천
同年 9월 경기도 평택, 충청남도 천안, 조치원, 유성, 충청북도 황간, 영동, 옥천, 보은
同年 10월 충청북도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충주, 단양, 제천
同年 10월 충청남도 홍성, 청양, 서산, 태안, 당진, 예산, 아산
同年 11월 충청남도 보령, 남포, 서천, 홍산, 부여, 논산, 공주
昭和 14년 3월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곡성, 구례, 순천, 광양, 벌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
同年 4월·5월 평안남도 용강, 한천, 영유, 안주, 개천, 덕천, 영원, 맹산, 양덕, 순천, 성천, 강동
同年 5월 평안북도 용암포, 철산, 선천, 정주, 구성, 태천, 박천, 운산
同年 6월 평안북도 영변, 희천, 강계, 후창(후창에서 병을 얻어 중간에 멈춤)
同年 9월 평안북도 자성, 위원, 초산, 벽동, 창성, 의주(同年 10월, 11월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사를 하지 못함.)
昭和 15년 3월 전라북도 전주, 김제, 정읍, 전라남도 광주, 영광, 제주도 제주, 대정, 서귀포, 성산포
同年 4월 경상북도 대구, 고령, 경상남도 합천, 거창, 함양, 진주, 함안, 거제, 김해, 양산, 밀양
同年 5월 경상북도 금천, 상주, 예천, 영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흥해, 경주, 경상남도 울산
同年 10월 함경북도 경성, 부거, 온성, 회령, 무산, 길주 함경남도 서천, 북청, 영흥, 안변, 강원도 철원 (밑줄 필자)

『고찰』의 기록에 의하면 방언조사는 1938년 4월부터 1940년 10 월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8월, 12, 1, 2월을 제외하고 주로 봄, 가을로 방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의 서쪽 지역을 오르내리며 조사한 뒤 한반도의 동쪽 지역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 강원, 함남, 함북의 조사가 매우 적게 이루어졌고, 이 중 전북의 조사 지점이 왜 적은

지에 대해서 『시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였다.[15] 아마도 그것은 『고찰』의 1939년 9월의 방언 조사 지점 뒤에 기록되어 있듯이, 부친상을 당하여, 1939년 10월과 11월에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조사 시기를 보면 부친상을 당한 바로 그 뒤 1940년 3월에 전라북도 지역의 방언을 조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39년 6월 평안북도의 방언을 조사할 때는 본인도 병에 걸려 방언 조사를 잠시 중단했음을 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래 계획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사 지점에 대한 방언 조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고찰』의 머리말에는 조사 시기와 지점에 대한 기록과 함께 방언 조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기술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고』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방언 조사 방법론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고』가 더 자세하다. 뒤이어 나오는 범례(凡例)의 내용은 『시고』의 '標音記號に就いて'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고찰』보다 『시고』의 경우가 더 체계적인 기술을 보이고 있다.

2) '·'音에 대한 논의

본문의 각 주제별 논의는 대체로 관련 방언 어휘의 제시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 대한 방언 자료의 제시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ᄒᆞ·ᄅᆞᄂᆞ·ᄂᆞ다'를 제외하면 『고찰』과 『시고』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고찰』과 『시고』의 설명 중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시된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음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먼저 『고찰』과 『시고』의 관련 부분을

15) 이진호, 앞의 논문, p. 237.

해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6]

> 이상 주로 제1음절에 있어서 ·음의 방언 상황을 서술했는데 제2음절은 거의 [ɯ](ㅡ)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1음절을 명료하게 발음하기 위해 제2음절 이하의 모음이 무시되어 가장 불분명한(불명료한) [ɯ]로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ㄱ·ㅿ·ㄹ은 *kɐʒɐl 〉 kaɯl 로 된 것으로 이것은 나아가 ka:l로 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대로이다. 따라서 문제는 역시 제1음절에 있는 것이다. (『考察』 부분)

> 이상 주로 첫 음절에 있어 '·'의 방언별 상황을 서술했는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대부분 [ɯ]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첫 음절을 명료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둘째 음절 이하의 모음이 무시되어 매우 불분명한 발음에 이른 결과이며 여기에는 악센트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음직하다. 예를 들어 'ㄱ·ㅿ·ㄹ'은 *kʌʒʌl 〉 kaɯl로 된 것인데, 조선 초기에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에 동일한 모음을 지니고 있다가 이러한 양적, 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조선 초기 이후에 강약 악센트(stress accent)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제는 역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것이다. (『試考』 부분)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찰』의 경우, 보고서의 성격을 띤 글이었으므로 참고문헌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고』의 경우는 매우 꼼꼼하게 참고문헌이 각주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두 자료에서 동일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 『시고』는 심악 이숭녕 선생의 '·음고(·音攷)'를[17] 각주에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찰』을 쓸 당시에도 이 논문을 참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에 대한 고노 로쿠로의 논의는 제1음절과 제2음절

16) 『試考』의 해석은 이진호의 번역을 인용하였다(이진호 譯註(2012), 한국어 방언학 시론 - 'ㄱ·시개(鍬)' 고찰 -, 전남대학교 출판부).

17) 李崇寧, 「'·' 音攷」, 진단학회, 『진단학보』12, 1939, pp. 1-106.

에서 ‘ㆍ’의 변화에 대한 심악 이숭녕 선생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8]

위의 『시고』의 기술에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악센트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고찰』에는 없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며 이는 제1음절과 제2음절에서 ‘ㆍ’의 변화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노 로쿠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심악 이숭녕 선생의 이후 연구에서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인용하면서 ‘악센트에 이유를 구한 것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19] 1939년에 발표한 ‘ㆍ음고(ㆍ音攷)’에서는 ‘음세(音勢) 약한 음절’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으나, 1949년의 저서에서는 고노 로쿠로의 ‘강약(强弱)악센트’라는 표현을 받아들여 이를 ‘음세 약한 음절’과 함께 쓰기도 하였다.[20]

‘ㆍ’에 대한 논의에서 『고찰』과 『시고』가 보여 주는 또 다른 차이는 제주도 방언의 ‘ㆍ’ 음가에 대한 것이다. 『고찰』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ㆍ’ 음가를 개구(開口, 평순)의 [o]에 해당하는 [ɤ]로 표시했으며, 『시고』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ω]로 표시하고

18) 기존의 논의에서도 ‘ㆍ’에 대한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논의는 당시 이미 ‘ㆍ’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심악 이숭녕과 비교할 때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이진호, 앞의 논문, pp. 227-252).

19) 李崇寧,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을유문화사, 1949.

20) 심악 이숭녕 선생의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일본인 학자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를 비롯하여 그 제자들의 좌담회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메다 히로유키 선생의 기억에 의하면 1967년에 한국에 갔을 때 심악 이숭녕 선생님께서 먼저 핫토리 시로(服部四郎) 선생을 초대한 후 그 다음은 고노 로쿠로 선생이라고 하시면서 그 연락을 맡기신 적이 있다고 한다. 다만, 고노 로쿠로 선생으로부터 받은 답장이 요즘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退嬰的になって)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절의 뜻이 담긴 것이었다고 한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심악 이숭녕 선생과 고노 로쿠로 사이에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梅田博之, 大江孝男, 辻星兒, 坂井健一, 古屋昭弘, 「座談會 先學を語る-河野六郎博士-」, 『東方學』 120, 2010, pp. 177-210).

있다. [ɷ]는 [ɤ]에 대해 원순성을 가지고 있되 [o]와는 다르게 입술을 바깥쪽으로 여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음가를 달리 보고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ㆍ'의 음가라고는 보고 있지 않으므로 'ㆍ' 음의 음가가 각 방언의 음가로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설명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이중모음(二重母音)에 대한 논의

『고찰』에서는 이중모음이 두 번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시고』에서는 네 번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시고』가 'ㄱㆍ시개'를 큰 주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중모음과 관련된 논의에서 『고찰』와 『시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중모음'과 '복합모음'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고찰』에는 이중모음이라고만 언급하였으나, 『시고』에서는 소제목부터 복합모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런데 복합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21]

아래의 서술은 『고찰』에는 없고 『시고』에만 보이는 내용이다.

> 이상의 서술을 통해 'ㅐ, ㅔ, ㅚ' 등이 예전에 복합모음이었다는 사실을 방언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부터 추측하였다. 또한 많은 방언이 보여 주듯이 이들은 대부분 단모음화의 길을 밟았음을 알게 되었다. 한글 창제 당시의 문헌이 대체로 발음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볼 때 'ㅐ, ㅔ, ㅚ' 등의 구조는 복합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21) 이진호, 앞의 논문, pp. 227-252.

이것은 방언 자료를 통해 중세국어 이전의 국어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 등장하는 어휘들(뫼(磨一), 게(格以))에서는 복합모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글 창제 시기쯤에는 이중모음으로 이행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고노로쿠로가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찰』과 『시고』에서 인용되고 있는 문헌자료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찰』에서는 근대국어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繪)'만 인용되고 있고 『시고』에서는 '화한삼재도회'와 함께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인 '조선관역어' 등도 인용되고 있다.[22] 따라서 『고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음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복합모음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에 대한 논의

『고찰』에서는 △이 네 번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시고』에서는 두 번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시고』에서 △이 두 번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중모음에 대한 논의의 처음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고』가 'ㄱ·시개'를 큰 주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고찰』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술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찰』에서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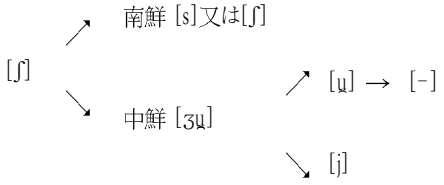
---

22) 이것은 이중모음에 대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考察』과 『試考』에 인용되는 문헌 자료 전체가 이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訓民正音發布當時の諺文の中で今日用いられないものが二三あるが、其の中最も重要なるは此の△である。此の音価に就いては小倉先生を始めとし幾つかの說を出されているが、玆には筆者の一私見を述べるの止める。(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언문 가운데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것이 두세 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다. 이 음가에 대해서는 小倉 선생을 비롯하여 몇 가지의 說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고찰』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고노 로쿠로가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고 밝힌 것은 △에 대한 기술이 유일하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에 대한 논의가 『고찰』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어진 이유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에 대한 『고찰』과 『시고』의 기술은 △의 음가에 대한 논의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찰』에서는 △이 포함된 어휘의 방언형에 대한 기술 후에 다음과 같이 △의 변화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23]



『고찰』에서는 다양한 방언형의 변화를 아우르기 위한 △의 음가를 [ʒɰ]로 보았다. 이는 그의 스승인 오구라 신페이가 △의 음가를 [z]라고 본 것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고』에서는 △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는 자리에서 '△이 처음에는 [z]였던 듯하지만, 소실되기 직전에는 [z] 또는 [ʒ]

23) 이러한 △ 변화의 도식적 기술은 『試考』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는 [ʒɰ]로 상당한 동요를 보였던 것처럼, 소실 후에도 그 결과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의 음가를 처음에는 [z]로 보고, 『고찰』에서 △의 음가로 제시했던 [ʒɰ]는 그 음가가 소실되기 직전에 보인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동경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이라는 자료에 대해 서지적인 고찰과 아울러 그 체제와 내용적인 측면을 일부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서문이 쓰인 연월과 서문의 표현, 그리고 『조선방언학시고』의 내용과 비교한 결과, 이 자료는 고노 로쿠로가 방언 조사를 마치고 쓴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라는 조사보고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자료가 오구라 신페이의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이루어진 것임을 전체적인 자료의 형식과, 주제의 배열, 부록으로 제시된 방언 자료의 배열 및 서술 방식을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조선방언학시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방언 조사 시기를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방언 조사 지점의 조밀도에 편차가 생긴 이유를 밝혔다. 또한 'ㆍ'와 '이중모음', '△'에 대한 서술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추가 기술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ㆍ'의 경우 이미 고노 로쿠로의 '조사보고서'가 이숭녕(1939)를 바탕으로 하여 쓰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중모음'의 경우 '이중모음', '복합모음'이라는 용어 사용의 차이가 두 자료에 인용된 문헌의 차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ㅿ'의 음가에 대한 고노 로쿠로의 견해가 『고찰』과 『시고』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조선어 방언의 음운론적 고찰(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이라는 자료를 통해 고노 로쿠로의 한국어 방언 연구가 오구라 신페이의 연구와 여전히 이어지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논의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더 넓은 시야에서 고노 로쿠로의 한국어 방언 연구를 바라보는 작업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河野六郎, 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 출판사 미상, 1941.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考-「鋏」語考』, 東都書籍, 1945.[이진호 譯註, 한국어 방언학 시론 - 'ㄱ、시개(鋏)' 고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2. 논문

李秉根, 「방언 연구의 흐름과 반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 1, 1979, pp. 12~31.
李秉根, 「1910~20년대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과제와 방향 - 小倉進平의 方言研究를 중심으로-」,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2, 2005, pp. 23~61.
李崇寧, 「'ㆍ' 音攷」, 진단학회, 『진단학보』 12, 1939, pp.1~106.[『이숭녕국어학선집(1)』(1988, 민음사)에 재수록]
이진호, 「小倉進平의 국어 음운론 연구」, 우리말학회, 『우리말연구』 23, 2008, pp. 87~111.
이진호, 「河野六郎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하여」,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14, 2011, pp. 227~252.

정승철, 「小倉進平의 생애와 학문」,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11, 2010, pp. 155~184.
梅田博之, 大江孝男, 辻星兒, 坂井健一, 古屋昭弘, 「座談會 先學を語る-河野六郎博士-」, 『東方學』 120, 2010, pp. 177~210.
小倉進平,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No. 12, Tokyo, The Toyo Bunko, 1940.

3. 단행본

李崇寧,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을유문화사, 1949.[『이숭녕국어학선집(1)』(1988, 민음사)에 재수록』]

[Abstract]

A Study on the Kono Rokuro(河野六郎)'s Research of Korean Dialects

Park, Kee-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no Rokuro's book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Dialects〉(朝鮮語方言の音韻論的考察) owned by The University of Tokyo. This book is identified as 〈data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Dialects〉(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 written by Kono Rokuro by examining the bibliography and contents of it.

The contents of this report is very similar to 『The Outline of Korean Dialects』written by Ogura Shimpei. This book is basis of the report『朝鮮方言學試考』. But two texts have some difference in description of Korean Dialects. It is very interesting work to find the difference and lighten underlying meaning of that.

Key words: Kono Rokuro, Ogura Simpei, Korean dialect, 『The Outline of Korean Dialects』, 〈data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Dialects〉(朝鮮語方言の採集及び整理)

박기영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전화번호: 02-6490-2541
전자우편: pky1020@uos.ac.kr

이 논문은 2015년 3월 4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